

52과 학년을 마치며 - 신창훈 목사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Si, pues, nos examinásemos a nosotros mismos, no seríamos juzgados;

됐습니다.

이번 주 공과는 52과 학기를 마치며입니다.

벌써 그 학기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던라고요

머릿돌을 살펴봤더니 52과 학기를 마치며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관련된 그 내용은 별로 안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반 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또 작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느라고 (음성이 잘림) 내용들을 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분반시간은 그렇게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학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래 학기가 마무리 된다, 학년이 마무리 된다, 혹은 어떤 일이 마무리 된다고 할 때 항상 뒤따라 오는 것이 바로 평가와 반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교사수련회를 하든 혹은 작은 집회를 하든 아니면 그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마무리는 항상 그 반성과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계획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세운다면 하

루를 마무리 할 때는 또한 누운 자리에서건 아니면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건 하루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그런 기도로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는 반성과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린도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 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것은 결국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교인들도 많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또한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이 반성과 평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일까요?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다

실수, 후회.

답이 후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주 반성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평가를 해봐야 될까?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학년을 마치면서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의 수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수업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었고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진행 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Los profetas que profetizaron de la gracia destinada a vosotros, inquirieron y diligentemente indagaron acerca de esta salvación,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escudriñando qué persona y qué tiempo indicaba el Espíritu de Cristo que estaba en ellos, el cual anunciaba de antemano los sufrimientos de Cristo, y las glorias que vendrían tras ellos.

12절은 첫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A éstos se les reveló que no para sí mismos, sino para nosotros, administraban las cosas que ahora os son anunciadas por los que os han predicado el evangelio por el Espíritu Santo enviado del cielo; cosas en las cuales anhelan mirar los ángeles.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을 섬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섬겼을까?

그것은 바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한 것이다.

결국 각각의 위치에서 섬기는 게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사교육 할 때 항상 배우는 냄비 지지는 일, 혹은 그릇을 수효대로 내고 또 들어가고 하는 일, 안식일에 떡을 올리는 일,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섬기는 일에 통달한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역대하에서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통달한 것은 그릇 내고 들어가는 일에 통달했고, 냄비지지는 것에 통달했고, 떡 굽는 것에 통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통달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섬기는 일에 통달했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통달하자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통달하는 것인가?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결국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교훈이 되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잘 섬기는 것일 것 같아요

즉 수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것을 상고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다.

나 역시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인데 나는 과연 수업준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수업시간에 빠지거나 결석, 지각하지 않았는가?

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수업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는 거잖아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아서 국회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행 된다고 말하는 데 그 이상으로 치명적인 게 교사가 결석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나의 출근율, 출근율이라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나의 주일의 수업 참여도는 얼마나 됐을까?

혹 52주 중에서 어떤 사유로 1~2주 정도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1~2주가 넘어서서 3~4주, 5주 같다 라면 굉장히 큰 문제로 교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몇 번 수업을 빠졌는가?

몇 번이나 늦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수업준비에 충실해서 왔는가? 라는 것도 돌아 볼 일이죠

나는 과연 머릿돌에 나와 있는 그 관련 성경 장들을 다 읽고 수업에 참여했는가?

보통 머릿돌에 보면 관련 성경 몇 장, 몇 장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그 장들을 여러 번 묵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내가 그 장들을 읽지 못하고 그냥 머릿돌만 읽고 왔다 라면 그것도 반성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릿돌에 나와 있는 암송을 교사는 얼마나 암송을 하고 왔는가?

혹 그 주일날 주일 암송을 외울 때 고개를 숙이면서 컨닝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놓고 나 자신은 암송을 못해서 컨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뿐 아니라 얼마만큼 분반지도안을 충실하게 작성을 했고, 관련된 분반, 그 수업과 관련된 보조 교제들 뭐 시청각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다른 만들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그 보조 자료들을 얼마나 활용을 했고 만들어 왔고 준비를 했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2주 내내 말로만 수업을, 분반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말로만 하는 분반이 꼭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성면
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한 수업에 빠진 아이들에게 연락은 했었는지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수업에 빠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봤었는지?

그 아이들에게 이번 수업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돌아볼 문제고 또한 그 아이의 학부모와 얼마나 통화
를 했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디서 조사한 걸 보니까 사실은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 라는 그
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그럼 교사는 뭐냐?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올바
로 이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부모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즉 학부모의 역할을 일깨우고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잘 교육 시키 수 있
도록 정보제공 해주며 교제해 주는 게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의 어머니 이름은 알고 있는지? 혹시 전화는 얼
마나 자주했는지? 또 만나봐서 자녀문제로 교제해 본 적은 있는지? 이런 것

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분반 아이들과.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수업 체크 중에 하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요 모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탤런트인데 그분이 항상 느끼한 말을 잘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만요

무대는 나에게 있어서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돌아가는 그 무대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신성한 공간이라는 거죠

꼭 옛날 만화책에 나오는 그 대사 같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카메라 돌아갈 때 취하는 행동을 보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그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촬영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변호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는 훌륭한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당신이 어떻게 훌륭한 변호사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변호사가 한 말이 첫째 나는 법을 잘 알고 있고, 둘째 그 법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그 법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

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변호사다 나는 훌륭한 변호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어요

만일 나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성경을 어떻게 잘 아이들에게 들려줄지 적용시킬지 방법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도 훌륭한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은 교사로서 가장 주요한 수업준비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한 학년을 마치면서 필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디오 다시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두 번째 우리가 반성해 돼 봐야 볼 것은, 반성해 볼 것은 실제로 이렇게 수업준비를 충실히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결국 결과가 있었냐? 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단 1년 만에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단지 나에게 달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성령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년 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학기 초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키가 자란 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나에게 배움으로써 성장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y que desde la niñez has sabido las Sagradas Escrituras, las cuales te pueden hacer sabio para la salvación por la fe que es en Cristo Jesús.

16절 17절은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한 번 암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 하겠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oda la Escritura es inspirada por Dios, y útil para enseñar, para redarguir, para corregir, para instruir en justicia,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 fin de que el hombre de Dios sea perfecto, enteramente preparado para toda buena obra.

여기에 보면 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죄인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이 성경을 계속 배워나감에 따라 결국은 작은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전케 되게 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information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transformation 변화 시키는 데 있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6세나 7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시간이 25분정도 주어져있어요

길게는 30분인데, 그 30분간 한 공과를 설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고 나온 다음에 항상 돌아볼 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경 이야기 해주고 나왔지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서 깨끗해졌단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 적용을 안 시키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성경 이야기 하고 제가 얻은 교훈 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는 데 과연 이야기만 듣고 아이들이 변화될까?

상당히 그 반성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 해주는 것은 지식 증가라는 효과는 있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변화 되는 데에 있어서는 단지 그 말씀만 읽음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올바른 수업을 했다 라면 단지 그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늘었다라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년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혹 인사 하나라도 분명하게 배우고 이 학년을 마치고 지나갔는가?

존댓말이라도 혹은 행동이라도 뛰던 아이가 걷는다던지 인상을 쓰던 아이가 웃는다던지 이 교실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뛰놀던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 했다던지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하나라도 있는가? 라는 것을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아이가 있는지? 또 구원받은 아이라면 행동이 변한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겠죠?

또 체크해본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1년 동안 수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 꿈을 심어줬는지?

이 아이는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원래 교사를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1년 내내 배우고났는데 마음속에 있는 꿈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고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얼마나 우리 분반 아이들을 칭찬해줬는가?

얼마나 쓰다듬어 줬고 얼마나 안아줬는가?

우리가 학부모 간담회 때도 공부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랬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했고 얼마나 많이 안아줬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향해 웃어 줬는가?

그리고 그로인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는가?

1년을 돌아보면서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반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왜? 다 똑같았거든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아쉬운 일이죠

만일 정말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반을 했더라면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순간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정말 물었을 때 아마 모든 아이들의 입에서 아 이때가 가장 보람 있었어요, 이때가 기억에 남았어요 하고 아이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내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아이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글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도 분반시간에 좀 교제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 자신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수업내용이 좋아졌다 그리고 나에게 배운 아이들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성장했다 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업도 똑같고 아이들도 그대로다 하면 그러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

아 봐야겠죠

내가 성장했다 라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졌을 거고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달라졌을텐데 그들이 변화가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결국 나도 1년 이라는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그것도 교사로서 했는데 그런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Ocúpate en estas cosas; permanece en ellas, para que tu aprovechamiento sea manifiesto a todos.

이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가서 교제를 이끌어 나가려다 보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무시했을 것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디모데가 경험이 적다라고 무시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돈을 권력 삼아서 목회자를 무시했을 수 있고, 혹은 그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지식으로 디모데의 설교라든지 목회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진정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열심을 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열심을 내라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너의 진보가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그 열매를 보고 너를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리더십 책에 보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못 할 겁니다.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디를 존경했습니다.

스펄전도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이라든지 우리의 세상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사됨을 하나님이 세운 교사됨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1독을 했는지 2독을 했는지 혹은 한 번도 읽지 못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보통 구약 한 번 신약 세 번 읽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교사는 그것보다는 더 읽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2독 신약 3독 이상, 5독정도 했더라면 좋겠다 만일 못했더라면 최소한 주보에 있는 것처럼 구약 1독 신약 3독은 했어야 했는데 과연 내 성경읽기 표는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혹은 아예 성경읽기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인데 동일한 기도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자동응답기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한 말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그리고 교제 참석은 어떻게 했는지?

교사라는 걸 핑계로 구역모임에 안 나간다든지 청년 모임에 너무 소홀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덕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면 기본적인 교제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얼마나 달라졌느냐?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것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웃고 울고 있는가?

혹은 올해는 더욱더 내 눈이 각도가 높아져서 높은 데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내 고개가 더 낮아 졌더라면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됐더라면 퇴보한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고개가 높아져서 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더 앙

망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천국에 갈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큰 열매인 구원 받은 사람이 혹시 있었는가? 나를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내가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은 말을 꺼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로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열매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부모님 전도에 대한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직장 동료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기도가 그냥 열매 없이 끝나 버렸다라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나의 성장도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세 가지 첫째 학습에 대해서 수업 시간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둘째 가르침으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리고 셋째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세 가지가 올바로 평가가 된다면 이제 3월부터 새로 시작될 분반에 대한 각오가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은 반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 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굵은 굵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뀌기 위한 지침들을 세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 학년들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학년들을 맞이했을 때는 더 나은 수업, 그리고 더 변화 된 아이들, 그리고 더 상장한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Hermanos míos, no os hagáis maestros muchos de vosotros, sabiendo que recibiremos mayor condenación

반드시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로써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죠?

가르치는 일에는 더 큰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한 학년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거울삼아서 내 자신을 판단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 학년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더 굳은 각오를 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